**3섬 순례**

**역사가 깊은 마을을 지나 게라마 공항 바로 위의 전망대로 향하는, 해안을 따라가는 워킹**

경로: 아카항 - 후카지 전망대 - 아카항

거리: 6.6km(왕복)

소요 시간: 100분

난이도: 쉬움

**개요**

명칭은 다소 거창하지만 3섬 순례는 사실 꽤 쉽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는 모든 섬이 작고 평탄하기 때문입니다! 도중에는 두 다리에서 게라마 블루를 마음껏 바라보고, 역사적인 가옥에 들르고, 자마미의 섬들 전체의 파노라마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출발 지점은 아카항입니다. 아카항에서 이웃한 게루마지마 섬에 가려면 총길이 530m의 아카대교로 가야 합니다. 다리 한가운데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게라마 블루의 조감도를 즐기며 상쾌한 바람을 즐기세요.

게루마에 도착하면 길이 해안선을 따라서 지나고 있습니다. 걷기 쉽기 때문에 30분 내로 작은 게루마 마을(인구 60명)에 도착합니다. 잠시 휴식하며 다카라가 주택에 들러보세요. 다카라가 주택은 현존하는 소수의, 게라마 제도의 전통적인 뱃사람의 집 가운데 하나로서, 태풍에 강한 거대한 담, 보존 상태가 좋은 집 내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섬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별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회암 담과 후쿠기 나무들로 가장자리를 꾸민, 풀이 무성한 샛길을 천천히 거닐어보세요. 미군이 섬에 상륙한 뒤, 집단 자결로 사망한 많은 아이들의 위령비인 ‘고바토노토’에서 기도를 올려보세요.

게루마를 만끽했다면 게루마바시 다리를 건너 후카지로 향합니다. 인구가 약 260명인 섬을 출발해서 그 다음 섬은 인구가 60명이었지만, 다음 섬은 인구가 무려 0명입니다! 약 15분 정도 걸으면 게라마 공항에 도착합니다. 기와 지붕의 터미널에 오키나와 특유의 건축 요소가 어떤 식으로 도입되어 있는지에 주목해주세요. 공항 입구에 면한 잔디 게이트를 찾아보세요. 이곳을 빠져나가서(나왔으면 닫아주세요) 언덕을 오르면 후카지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후카지 전망대에서는 공항과 주위의 류큐마쓰(소나무과의 나무) 숲, 남쪽 방향의 게루마와 아카, 그리고 서쪽 방향의 무인도인 구바와 야카비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한숨 돌렸다면 언덕을 내려가 같은 경로로 아카로 되돌아갑니다. 노르딕 워킹 스틱을 빌리고 싶다면 독특한 돌담과 붉은 기와 지붕이 있는 산고윤타쿠칸에서 렌털할 수 있습니다.

**SUGGESTED PHOTO(S)**

1. View from Fukaji (Hero image)

2. Aka Ohashi Bridge

3. Takara House

4. Geruma Green Alleyway

5. Geruma Bridge

6. Airport

7. View from Fukaji